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6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천진불의 영어 전생담 경연…"부처님처럼 살래요!"

국제포교사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현장

'16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
국제포교사회, 1월 12일 개최
130명 예선, '30팀' 본선 진출

암기는 기본, 춤 · 노래도 선봬
송시우 · 홍채은 · 추우주 · 하지현
대상인 '포교원장상' 수상해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I want to be a wise and kind buddhist, like a buddha himself!"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될래요, 부처님처럼요!)

한국불교의 미래인 불자 어린이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영어 실력을 뽐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담긴 〈자타카〉를 영어로 공부한 어린이들은 입을 모아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는 1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6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를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배워, 불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글로벌 인재로 육성코자 2008년부터 마련됐다.

대회에 앞서 조규태 국제포교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불교의 희망이 밝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며 "앞으로도 신심을 잘 유지해서 불교 중흥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전생, 금생, 내생 삼세인과를 믿는다는 것이다"면서 "오늘 자타카 어린이 말하기 대회로 학생들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읽고 배우고 발표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다. 어린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130여 명이 지원했으며, 영상 예선 심사를 거쳐 총 3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진관사, 구룡사, 청계사, 봉녕사, 삼성암 등 다양한 사찰에서 모인 어린이들은 저학년부(초1~4)와 고학년부(초5~중3)으로 나뉘어졌다. 어린이들은 '메추리기왕과 사냥꾼' '할머니의 검둥이' '날아갈 수 없었던 아기 메추라기' '반얀 나무의 탄생' 등 9개의 〈자타카〉 원고를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다.

이번 자타카 대회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자타카〉를 공부하며 불자로서 느낀 '교훈'과 '다짐'을 밝힌 참가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날아갈 수 없었던 아기 메추라기'를 발표한 김연준(11) 학생은 "산불로 인해 혼자 남겨진 아기 메추라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지혜의 힘으로 불을 꺼 모든 생명을 구제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옥에 간 사람이라도 돕겠다는 다짐(vow)을 하게 됐다. 앞으로 매일매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빈(11) 학생은 '춤추는 공작'을 통해 불교의 '겸손'을 강조했다. '춤추는 공작'은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던 공작새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아내를 잃는 교훈이 담긴 우화이다. 김 학생은 발표에서 "배우나 쇼트트랙 선수처럼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인데 공작새처럼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언제나 겸손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자타카 대회 처음으로 2인 이상이 그룹을 이뤄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다. 김도하, 이동건, 박서이, 김세린, 양희진 팀은 한 농부의 '거대한 황금덩어리' 이야기로 3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첫째 산적이 땅속 깊이 숨긴 황금을 끝까지 캐낸 농부처럼 '포기하지 말 것', 둘째 황금을 나눌 방법을 신중히 고민한 농부와 같이 '천천히 생각할 것', 끝으로 어려운 이웃과 황금을 나눈 농부를 본받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참가자들 간 열띤 영어 겨루기가 끝난 후에는 심사발표가 이어졌다. 심시위원장 정혜 스님은 "이번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단순한 영어 실력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대상(포교원장상) 수상의 영예는 '반얀 나무의 탄생'을 발표한 추우주, 하지현 팀과 '기쁨이라고 불리는 황소' 이야기를 전한 송시우, 홍채은 팀이 안았다. 송시우(13, 은빛초) 학생은 "받을 줄 몰라서 기대도 안 했는데 수상하게 돼서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영어 공부에 매진해 멋진 불자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연준 학생은 불자로 살 것을 다짐했다.


쇼트트랙 선수가 꿈인 김소빈 학생.


송시우·홍채은·추우주·하지현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반얀나무' 우화를 발표하는 추우주·하지현 어린이.


신나는 율동과 독특한 분장은 덤.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